사람 만남의 고수와 초 고수

(출28:1~43)

1.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2.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4.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5.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이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 만남의 고수와 초 고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사람 만남의 고수와 초 고수'

일본의 에도 시대(Edo period) 때에 유명한 무사(武士)가문인 야규 가문의 가훈에 "소재(小才)는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중재(中才)는 인연을 만나도 활용할 줄 모르고, 대재(大才)는 옷깃을 스쳐지나가는 인연도 큰 인연으로 만든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재는 소인배이고 중재는 보통 사람 대재는 대인배로 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수'는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만남을 요청해올 뿐만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작은 인연도 아주 큰 인연으로 발전시켜서 자기 인생을 풍부한 내용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귀한 인맥 만들기"라는 책에서는 이 만남에 하수, 중수, 고수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누구나 하수부터 출발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중수의 만남을 이루고, 고수로 발전할 수 있어야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만남에 임하는 사람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필연적 만남, 의도적 만남, 계획적 만남… 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 하수, 중수, 고수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수는 좋은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불특정 다수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앞에서 소개한 만남의 여섯 가지 방법에

서 주로 필연적인 만남과 의도적인 만남이 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필연적인 만남은 가족이라서 만나야 되고 회사원이라서 만나야 되고 동창이라서 만나야 하는 이런 만남들이고, 의도적 만남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중수는 좋은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하수와는 다르게 특정인을 직접 찾아다니며 만남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으로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초청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만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중수입니다. 고수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요청하는 경우로 우연히 스쳐지나가는 작은 인연들을 큰 인연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만남의 하수입니까? 중수입니까? 고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를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그냥 복음을 들고 가는 것으로 만남의 하수 중의 하수예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만남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 여섯 가지 만남을 통해서 보는 기준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만남은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바보천치 같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벌레 같은 존재들을 만나러 오신 것으로 인간적인 만남의 기준으로 보면 하수도 못 되는 하수 중에서도 초하수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만남을 과거 지향적인 만남, 현재 지향적인 만남, 미래 지향적인 만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만남은 과거에 맺은 인연에만 충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라곤 초등학교 동창생 밖에는 없어서 직장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현재 지향적인 만남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한 것으로 이익 지향적인 만남으로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집니다. 미래 지향적인 만남은 앞으로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데, 인간의 삶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여섯 가지 만남이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나누어 보자면, 신앙인의 만남은 과거 지향적도 아니고 현재 지향적도 아니고 미래 지향적도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 만남이 제일 가까울 것 같지만 여기에 큰 오해가 있고, 우리의 미래는 앞에 있지 않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신앙인의 만남은 하늘 지향적 만남인데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제사장이 직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세상에서는 그 분류 형태를 구분할 수가 없는 하늘 지향적인 만남을 일생의 과제로 삼고 있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만남의 초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가장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라고 표현을 하시므로 제사장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이 만남은 초고수의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시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을 이루어내는 대제사장은 만남의 초고수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만남을 연결시켜서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늘 ‘옷’이라는 것과 연관 지어서 직분과 신분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말과 ‘거룩한 옷을 지으라’는 말을 연결시키십니다. 결국 옷은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직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 중의 하나가 만인제사장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기도 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직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왜 만납니까? 과거의 추억 때문에 만납니까? 현재의 이익 때문에 만납니까?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납니까? 아닙니다. 의도적인 만남, 계획적인 만남, 스쳐지나가는 인연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수의 만남, 중수의 만남, 고수의 만남을 나누는 여섯 가지 만남 속에 들어가 봐도 근본적인 동기는 내게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람을 만나는 동기와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를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사람을 만납니다. 만인제사장이라는 말대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직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시켜주는 자입니다. 내가 아들을 만나고 있다면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는 그 아들로 하여금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도 만나게 하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내가 부엌에서 살림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했다면 남편을 만나서 그 부엌에서 찬양했던 하나님을 남편에게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인데 이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의 몰입을 위해서 밭농사 지을 땅이나 사냥 할 수 있는 땅도 한 톨도 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대 전제하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자기에게서 일어난 경험을 모두에게서 일어나게 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자가 대제사장으로, 내가 지금 과장 자리에 있으며 부장님과 사장님과 한 회사에 있는 표면상의 이유는 과장으로서 일을 처리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지만,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장님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만인제사장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게 구분되었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를 선택한 것이

너무 잘 되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마음의 흡족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항상 그 사람이 1등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의 1등인 자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만나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만나고,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나고, 지식을 얻기 위해 만나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만나는 등 많은 만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 받은 사람들은 오직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도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1등 관심사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흡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바다를 보는데 기분이 나쁘다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름다우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남의 초고수인 것입니다.

이 만남을 염두에 두시고 옷을 만드시는 일에 대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대제사장의 옷의 구성을 성경은 겉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속에서부터 시작해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내 몸에 닿는 속옷부터 입으니 자연스럽게 따라가 봅니다. 제일 속에는 가는 베 실로 짠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반포'라는 것은 줄무늬가 있는 베 실로 짠 통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등까지 닿는 긴 통 옷이 속옷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내복과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겉옷"은 청색 실로 짠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청색 실로 짠 옷은 정강이쯤 오게 되고 그 옷의 끝자락에는 수를 놓아서 만든 석류 열매와 조그마한 종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합당치 않다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종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체도 꺼내올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발목에 밧줄을 매고 들어갑니다. 종소리가 들리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안 들리면 밧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꺼냅니다. 이게 겉옷입니다. 그리고 겉옷 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끼나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을 어깨에 걸쳐서 입게 됩니다. 그 위에 금 사슬을 만들어서 어깨에서 등으로 매서 앞에는 22.5cm 정사각형의 금실로 짠 "흉패"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네 줄에 각기 세 종류의 보석을 물립니다.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옷인데 특징적인 점은 이 '흉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가슴의 흉패에도 열두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고, "어깨받이"에도 12지파의 이름을 여섯 지파씩 나눠서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두 지파의 이름을 '어깨받이'에 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깨받이에 쓴다'

요1: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첫 번째 방해가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그 죄를 보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맨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허랑방탕한 죄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빠져나오고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로 그 점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악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것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선악과를 따먹고 언어를 도둑질한 결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집어넣고 있는 상태의 그 죄를 보는 것으로 그 죄를 보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만나서 “사장님! 당신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 하나님을 못 만나죠.”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방해하는 어떤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의 흉패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가슴의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모양의 돌인지 금속인지가 들어있습니다.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가부)을 묻는 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언어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서 움직이게 하는 상태가 만남이 올바로 이루어진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깨에서 가슴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서 가슴까지’
‘어깨’는 ‘죄를 짊어진다.’고 하는 의미로 죄를 먼저 보면서 그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우림과 둠밈으로 대표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고, 그 외에 제사를 드리고,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성소는 선민의 삶에 만들어진 태초입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태초를 만나야 하는 것으로 마음에는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을 만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참 거룩하다.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선택하기를 잘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거룩한 것이고 구분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대하고 있을 뿐인데 나를 1등의 관심사로 바라보고 흡족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름다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내 속에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네 겹의 휘장으로 차단이 되어 있고, 출입구도 휘장으로 가려져있고 성소와 지성소사이도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차단의 차단을 한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인제사장중의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성소에서 반드시 이 세상의 기운이 마음에서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나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만남도 주선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태초를 맞이해야 합니다. 태초는 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첫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돈을 생각한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돈 때문이 되어버리고, 잠자리에 일어나서 내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내 자식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자식을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처음 일어나서 애인을 생각하는 사람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내내 애인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 치는데도 시험을 잘 봐서 애인에게 듬직한 사람으로서 여겨지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순간 나의 태초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만나면, 그 이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만남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태초에 만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라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을 옷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옷을 통한 이 만남을 위한 직분의 이야기가 주님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나의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 같은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습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1등으로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느끼시는 사람과의 만남을 삶의 내용으로 채우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내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며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